전남서 신앙생활 홍재영·심조이 등 4명 복자 추대

광주·전남 성인·복자 누가 있나

16일 시복 124위에 포함

장성 출생 이봉금 최연소 복자

순교 8명 추가 시복시성 추진

홍재영

심조이

이봉금

김조이

광주·전남은 천주교 박해가 시작되자 많은 신도들이 생계유지와 신분은폐, 신앙을 지키기 위해 내려와 머물렀던 곳이다. 특히 1800년대 곡성과 장성을 중심으로 교구청이 운영돼 전북 지역에서도 많은 신자들이 내려와 활동하기도 했다. 특히 천주교 4대 박해 중 하나인 1872년 '정해박해'가 곡성에서 시발 돼 경상도와 충청도·서울 일부까지 영향을 미쳤다. 당시 곡성에서 많은 신도들이 전주와 정읍으로 끌려가 처참한 최후를 맞았다.

하지만 천주교는 출생지와 순교지를 중심으로 순교자들을 기록, 이 지역에서 신앙 생활을 했던 순교자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14일 천주교 광주대교구에 따르면 현재까지 광주·전남 출생으로 성인의 반열에 오른 순교자는 없다. 하지만 16일 서울 광화문 앞에서 열리는 '124위 시복식'에서 광주와 장성에 피난왔다가 붙잡힌 순교자 4명이 성인의 전 단계인 복자로 추대된다.

또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시복시성 주교 특별위원회'는 전남에서 순교한 5명과 지역에서 활동했던 외국인 선교사 3명에 대한 시복시성도 준비중이다.

16일 복자가 되는 순교자는 장성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려진 이봉금(아나스타시아)과 그의 어머니 김조이(아나스타시아)다. 이봉금은 이번 시복식에서 최연소 복자로 이름을 올렸다. 또 충주 출신으로 광주로 유배된 홍재영(프로타시오)과 그의 며느리 심조이(바르바라)가 포함돼 있다.

충청도 덕산 출신인 김조이는 이성삼과 혼인한 뒤 천주교를 받아들였고, 박해를 피해 도피생활을 하던 중 장성에서 딸 이봉금을 낳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1839년 기해박해가 시작되면서 이성삼의 행방이 묘연해졌고, 모녀는 관군을 피해 홍재영의 집에 숨어들었다. 하지만 4명 모두 관군에게 붙잡혀 전주로 압송된 뒤 생을 마감했다.

천주교 집안에서 태어난 홍재영은 그의 며느리 심조이와 함께 유배생활을 하면서도 박해를 피해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이들을 헌신적으로 거둬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홍재영의 아버지 홍낙민도 이번 124위에 이름을 올렸고, 그의 조카는 103위 성인에 포함돼 있다.

지역에서 순교한 3명에 대한 시복시성은 지난 2009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시복시성 주교 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조선왕조 치하의 순교자와 증거자-2차 시복시성' 명단에 포함된 강영원(바오로), 유치성(안드레아), 유문보(바오로)는 1871년 나주로 잡혀와 끝까지 신앙을 주장하다 1872년 나주 무학당(옛 조선군 군사 훈련장) 앞에서 순교했다. 나주 성당은 이들을 기려 천주교 광주대교구 소속 성지로 지정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를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과 환영식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6·25 전쟁 등으로 숨진 선교사와 순교자들을 위한 '근현대 신앙의 증인 시복시성'도 준비 중이다. 목포 산정동 성당에서 활동하다가 6·25 전쟁 발발과 함께 행방불명된 교구장 안 브렌난(Patrick Brennan) 몬시뇰, 고 도마(Thomas Cusack) 신부, 오 요한(John, O Brien) 신부 등 3명이 외국인으로 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목포 산정동 성당은 당시 주교좌 성당으로 안 브레난 몬시뇰은 광주교구장이었고, 고 도마 신부는 본당 주임 신부, 오 요한 신부는 보좌 신부로 활동했다. 이들은 1950년 7월24일 북한군에 체포돼 수난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신학생이던 나주 출신 전기수(그레고리오)와 목포 출신 고광규(베드로)가 1950년 9월24일 전주에서 체포돼 구금됐다가 북한군이 후퇴해 갈 때 학살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경인기자kki@kwangju.co.kr

신도 17만명 초청 최대 인파 100만명 참석

시복청원→복자선언→복자화 제막 順 진행

미리보는 광화문 시복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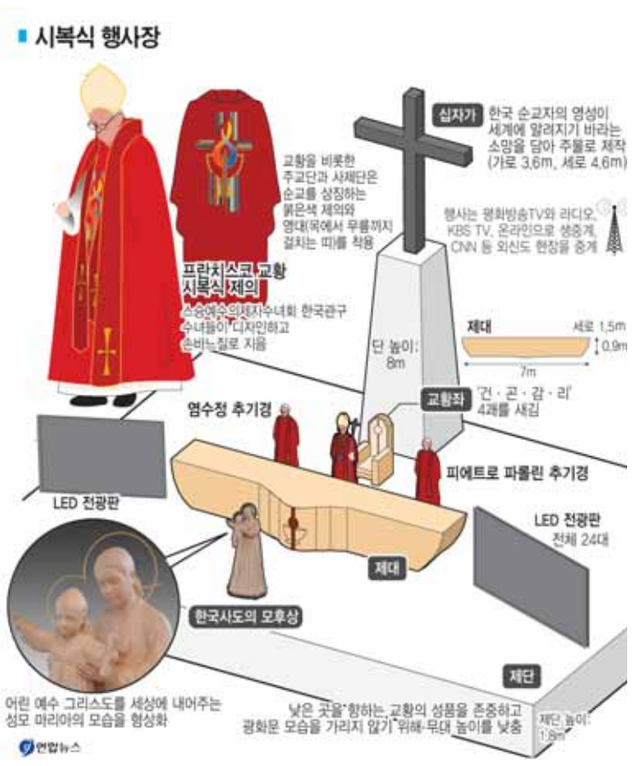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 행사 가운데 절정은 광화문광장에서 16일 열리는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시복식이다.

시복식은 순교자들을 가톨릭 교회 공경의 대상이자 성인의 전 단계인 복자(福者)로 공식 선포하는 것으로 교황이 순교자의 땅을 직접 찾아 시복미사를 거행하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다. 이 행사에는 정식 초청을 받은 신도 17만명이 참여하게 된다.

시복식은 최대한 소박하고 간소하게 진행된다. 신자들과 직접 만나 교감하기를 원하는 교황의 뜻에 따라 교황과 시민의 거리를 최대한 좁혔고, 낮은 곳을 향하는 교황의 성품에 따라 제단 높이도 1.8m로 낮게 설치했다. 또 시복 미사 제대 한켠에는 한복을 입은 성모상이 놓이고 교황이 미사 중 앉을 의자에는'건곤감리' 4괘를 새기는 등 한국적 요소를 곳곳에 배치했다.

교황은 시청에서 광화문 앞까지 퍼레이드하며 한국 신자들과 인사한 뒤 시복 미사를 집전한다. 미사에서 교황은 라틴어를 사용하며 신자들은 한국어로 응답하고, 강론은 교황이 이탈리아어로 전하면 한국어로 순차 통역된다.

미사가 시작되면 교황을 비롯한 주교단이 입장한다. 교황과 공동 집전자인 염수정 추기경, 교황청 국무원장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이 제대 앞에서 참회 예식과 자비송을 바친 뒤 시복 예식이 시작된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명옥 주교와 124위 순교자 시복을 위한 로마 주재 청원인으로 일해 온 김종수 신부가 한국 천주교를 대표해 시복 청원을 한다. 안 주교 등이 124위의 약전을 낭독하면 교황은 시복 선언을 한다.

이어 가톨릭 미술작가 김형주 화백이 그린 124위 복자화(福者畵) '새벽 빛을 여는 사람들'이 제막돼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다.

시복 예식이 나면 통상적인 미사 순서대로 대영광송을 부르고 교황이 미사의 주제를 드러내는 본기도를 바친다. 복음 낭독이 끝나면 교황의 메시지인 강론이 이어지고 신앙고백을 한 뒤 평화, 한국, 순교자들의 모범을 통한 복음화 등을 주제로 '신자들의 기도'를 올린다.

이어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고 예수의 몸을 나누는 성찬 전례를 갖는다. 이번 시복미사에서는 서울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면서 20년 동안 매일 첫 매상을 지구촌의 가난한 이웃을 위해 기부해 온 강지형·김향신 씨 가족이 빵과 포도주를 예물로 바친다.

축성(祝聖), 경배에 이어 염 추기경이 라틴어로 '신앙의 신비여'를 노래하면 교황은 예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예식인 성체성사를 통해 하나됨을 기도한다. 영성체를 마치면 교황과 염 추기경의 기도에 이어 교황이 신자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으로 시복미사가 모두 끝난다.

/김경인기자 kki@

교황 숙소는 교황청대사관의 6평짜리 작은방

프란치스코 교황의 한국 내 집무실 겸 숙소는 청와대 인근인 서울 궁정동 주한교황청대사관이다.

천주교 교황방한준비위원회에 따르면 교황이 방한 기간 내내 묵을 방은 요한 바오로 2세가 1984년과 1989년 두 차례 왔을 때 지낸 곳이다. 교황은 약 20㎡(6평) 남짓한 주한교황청대사관 방에서 지낼 예정이다. '교황의 침실'은 경호 문제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천주교 쪽은 교황이 쓸 방을 언론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가 막판에 보안을 이유로 비공개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황청대사관은 청와대와 인접해 있어 치안과 경호에 있어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 대사관까지 가려면 보통 한두 번쯤은 검문을 받는다. 숙소 내부는 침대와 옷장, 탁자 등 최소한의 가구만 갖춘 모습이라고 천주교 관계자들은 전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검소하고 소박한 평소 스타일대로 현재 방 주인인 주한교황대사 오스발도 파딜랴 대주교의 침대와 옷장을 그대로 쓴다.

/연합뉴스